

한전공대 큰 산 넘었다... 학교법인 설립 '허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한전공과대학 설립이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통해 2022년 3월 개교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1주 연기된 심사위원회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로 진행,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최종 허가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학교 법인 설립은 3차례 보류·연기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106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지난 해 12월 20일 열린 1차 심사에서 심사위는 한전이 제출한 대학설립 재원출연계획안에 대한 구체성 결여를 지적하며 '계속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 1월 31일 2차 심사에서도 동일한 이유를 들었고 다음달 27일로 심사위 개최를 연기했다가 교육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재차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심사위는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 이상 찬성을 통해 법인 설립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 설립허가를 따낸 한전은 캠퍼스 착공과 총장 인선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총장 인선, 이사진 구성, 교원 선발과 더불어 지난 달 마감된 한전공

3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허가 결정

올 상반기 총장 인선, 이사진 구성, 교원선발 및 대학 캠퍼스 설계 착수



한전공대(가칭) 캠퍼스 가상이미지 ※ 건축설계시 변경예정

대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주시도 이에 발맞춰 전라남도와 함께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2월 19일자로 '한전공대 대학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캠퍼스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앞서 완료했다. 도와 시는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한전공대 운영비로 지원한다.

특히 세계 에너지 특화 한전공대 핵심 시설인 국가 대형연구시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목표로 시민 서명운동

을 추진하는 등 유치 우위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로 2022년 3월 개교까지 한걸음 더 내딛게 됐다"며 "국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관이자 구심점이 될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한전공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 하나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모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공대는 나주 혁신도시 부영CC부지 120만㎡(캠퍼스40만㎡, 클러스터40만㎡, 대형연구시설 40만㎡)에 총 6천210억원(추산비용)을 투입해 2022년 3월까지 조성된다.

오는 2040년 20년 내 국내 최고, 2050년 30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대학이 목표다.

학생 수는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1천명 규모로 교수진은 100명을 기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적용할 방침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군, 택시 운수종사자 특별지원금 지원

제1회 추경으로 1인당 30만 원 지원... 5월 추가 50만 원 예정

보성군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30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115명이며, 제1회 추경예산으로 지원금 3,450만 원이 확정되어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여행, 관광 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승객 수가 줄어 수입이 감소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안정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추경에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됐다. 또한, 5월 중에는 전라남도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에 따라 택시 종사자들

에게 5,750만 원(1인당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보성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택시업체에 마스크 676개, 손소독제 362개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지역 홍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택시 광고비를 9천 5백만 원(1대당 84만 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민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성/박형석 기자

진도군, 농어민 수당 60만원 전액 지급

4월 일괄지급...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용자도 실시

진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민 수당 60만원을 4월에 전액 지급한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회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4월에 60만원 전액 지급한다.

전체 6,131개 농가를 대상으로 약 40여억원을 지역농협을 통해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용자도 함께 신청 받고 있다. 문의는 진도군청 농업지원과(540-3542)로 하면 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작업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경영활동이 어

려운 농가로 농가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품목별 소요 경영비를 지원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기 지급과 특별 용자 지원을 통해 관내 농어민은 물론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어민 생활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진도/김병차 기자

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8월 28일까지 선착순 모집...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서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훈)이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1가구를 새로 모집한다. 대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까지 지원한다.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이고, 신청자는 화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혼인 신고를 할 결혼예정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대상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다주택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외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하거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다. 선착순 모집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제출 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www.hwsu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조직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신창균 기자

장흥군, '아동양육 한시지원' 40만원 지급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확정대상자 1인당 40만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7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을 통해 5억 2천만원의 예산을 긴급 확보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 아동수당 확정자 1295명으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이 해당한다.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까지 소급지급함에 따라 3월에 출생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도 해당한다.

군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정양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과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공사 KEPCO
광주전남본부